



정책 토론회 2016

현안진단 긴급토론회 「여성혐오에서 여성폭력으로」

- 일시 : 2016년 06월 01일(수) 10:00~12:00
- 장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교육장 202호
- 주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경기여성네트워크

초청의 말씀

현안진단 긴급토론회

여성혐오에서 여성폭력으로

일시 : 2016년 6월 1일(수) 10:00~12:00

장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교육장 202호

주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여성네트워크

안녕하십니까?

5월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 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심각성을 공유하여 6월 1일 「현안진단 긴급 토론회: 여성혐오에서 여성폭력으로」를 개최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문화의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사회적 대안을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사회혐오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의 해안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05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한 옥 자

경기여성네트워크 대표 최 병 일

프 로 그 램

좌장 : 한옥자 (본원 원장)

10:00~11:00

- 한국사회 혐오와 인권패러다임, 사회적 대안
 - 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 여성혐오의 실태와 배경, 그리고 쟁점
 - 정혜원 (본원 연구위원)
- 강남역 살인사건, 개인병리인가? 사회병리인가?
 -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과장 /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장)
- 언론의 시각으로 본 강남역 살인사건
 - 김서영 (경향신문 기자)
- 여성폭력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사회적 반응과 대책
 -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11:00~12: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장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교육장 202호(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번지 신관2층)



[행사문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031-220-3981)

목 차

- 한국사회 혐오와 인권패러다임, 사회적 대안 1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 여성혐오의 실태와 배경, 그리고 쟁점 5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강남역 살인사건, 개인병리인가? 사회병리인가? 11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과장/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장>
- 언론의 시각으로 본 강남역 살인사건 19
김서영 <경향신문 기자>
- 여성폭력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사회적 반응과 대책 25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한국사회 혐오와 인권패러다임, 사회적 대안

- 이주영 |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인권

-혐오의 시대가 불러온 공존의 위기, 성찰과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사건과 그에 대한 반응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기저에 깔린 혐오와 차별적 인식을 ‘긴급한’ 토론과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불러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 혐오, 폭력은 끔찍하지만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성 대결의 양상을 띠고 나타나거나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 점입니다. 누군가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 분노, 불안에 대해, 성별을 넘어서 친구와 이웃의 공감을 당연한 것으로 기대했던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성별화된 반응으로 인해 더 큰 불안,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차별적 인식과 폭력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하면 혐오와 조롱이 아닌 성찰과 연대를 형성해 갈 수 있을까, 여기서 공적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다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혐오의 양상과 배경¹⁾

2000년대 이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무슬림,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의 표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를 선동하는 집단들은 중첩되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혐오의 담론에 있어서도, ‘특혜’, ‘무임승차’, ‘혈세 낭비’ 등의 논리가 여러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범죄’, ‘질병’ 등과의 연계 논리는 특정 소수자 집단을 표적으로 한 혐오표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혐오가 확산되는 배경은 일상화된 경쟁과 생존에 대한 불안, 정치의 실패와 그에 따른 무력감과 허무주의라는 IMF 이후의 새로운 사회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뿌리 깊은 가부장제, 민족주의 등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확산이 야기하는 문제²⁾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표출과 확산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까요?

- 1) 이 단락의 논의는 2016년 1월 28일 개최된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에서 발표된 나영, ‘한국사회 혐오의 배경과 양상: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와 김호, ‘인터넷 혐오표현의 실태’, 김영옥과 손희정의 토론문을 참조하였습니다.
- 2) 이 단락은 줄고,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 논총』 제60권 제3호 (2015.9.30.), pp.195-227 중 혐오표현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첫째, 혐오의 표적이 된 집단의 일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고착화시킵니다. 개개인들이 느끼는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그 개인이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소수자 집단을 ‘세금을 축내는 집단’, ‘정당한 노력 없이 혜택을 누리는 집단’, ‘열등한 집단’, ‘범죄자’ 혹은 ‘병리적 집단’ 등으로 규정하는 등의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공격이고, 이들이 평등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이러한 혐오의 확산을 방치하는 경우, 그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은 ‘법의 평등한 보호’의 원칙이라든가 정치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 혐오의 옹호와 조장은 사회 내에서 서서히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키워, 이들에 대한 반감과 공격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로써, 소수자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악화시키고, 차별, 배척, 극심한 경우 물리적 폭력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누적될 때, 시민사회 담론 형성이 왜곡되고, 다원주의 및 민주적 가치가 악화될 뿐 아니라, 공동체 내 공존이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혐오의 옹호와 확산은 소수자 집단과 개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토양이 될 뿐 아니라, 사회 내 평화로운 공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차별금지 및 평등이라는 인권의 핵심적인 원칙이자 권리에 근거해,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해 법적 규제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들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응

우리 사회도,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조장, 확산시키는 표현을 차별행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혐오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혐오의 토양을 형성하는 사회정치적 배경에 대한 연구와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혐오가 다양한 감정의 작동을 통해 형성되고 확산된다고 할 때, 그렇다면 타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연대는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혐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근본적인 밑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혐오의 실태와 배경, 그리고 쟁점

-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여성혐오의 실태와 배경, 그리고 쟁점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여성혐오의 실태와 배경

- (여성혐오란?) 여성혐오(misogyny)는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사용하는 문화권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³⁾.
 - (일본) 우에노치즈코는 여성혐오가 남성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여, 여자를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여성을 나타내는 기호에만 반응하는 것을 말함.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 즉 여성 멸시를 그는 여성 혐오라고 부름(우에노치즈코, 2012: 12~13).
 - (미국) 누스바움(Nussbaum, 2012)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가 ‘대상화’와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함. 누스바움이 개념화한 ‘대상화’는 상대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여 상대의 감정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함. 포르노그래피적인 이미지, 강간 위협 등이 ‘대상화’의 예가 될 수 있음.
 - 여성혐오란 여성에 대한 증오, 멸시를 말하는데 여성을 남성의 소유, 이용이나 착취, 혹은 학대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전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것이라고 정의함(애덤스와 풀러(Adams & Fuller, 2006:939))
- (여성혐오문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인가?) 여성혐오(misogyny)는 최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문화·역사·철학·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또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은 소유와 교환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것은 체계적으로 가치절하 되었기 때문임(정인경, 2016)⁴⁾.
 - 김현란(2011)⁵⁾: 중세유럽사회의 여성혐오적 태도는 이브적 여성관, 장자상속제 확립이후 새로운 사회적 계층으로 등장한 성직자와 기사 등의 경쟁자로서의 여성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

3) 여성혐오에 대한 개념은 김수아(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제15권2호에서 발췌 요약함.

4) 정인경(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연구 제16권 1호

5) 김현란(2011), 중세 유럽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 혐오와 숭배, 서양중세사연구 제27호

(남성지배체제의 강화, 여성의 소외)

- (여성혐오문제 한국만의 현상인가?) 외국의 경우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포르노그래피적인 이미지를 통해 여성비하와 혐오메시지 전달 등이 많음.

〈그림 1〉 영국의 여성혐오표현 민간 감시 사이트



자료 : <http://www.endmisogyny.org>

- (여성혐오 실태는?)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에 대한 공격의 형태는 외모, 성과 여성성, 나이, 능력 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의 내용들이며,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다는 한국 여성을 일반화하여 공격함.

〈표 1〉 여성혐오 표현의 유형과 특징

구분		특징	사례
비하, 편견의 내용	외모	비만, 성형 등이 주요 비하내용	똥녀, 오크녀, 성괴, 껌딱지 등
	성과 여성성	성기와 관련된 욕설(신조어)	보지녀, 보슬아치, 걸레, 좆집, 정액받이 등
	나이	여성의 연령 가치	상폐녀 등
	능력	여성능력비하, 직장 무능	김여사 등
표현수준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	살해, 폭력을 직접적으로 기술	삼일한 등
	성폭력 표현	강간위협, 성기에 대한 폭력	강간표현 등

자료 : 박수아(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제15권2호 〈표 1〉 수정 후 인용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여성혐오와 관련된 표현들과 논의들은 정보가 되고,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산되고 재생산되어 현실세계의 일상이 됨(예를 들면 김치녀 등)
- 강력범죄를 성착판타지로 미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성인 잡지 <맥심>의 9월호 표지 사진

〈그림 2〉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추모현장



○ (인터넷 시대의 여성혐오의 배경)⁶⁾

사건	군가산점제 폐지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결정 2009년 군필자 가산점제도 부활 쟁점으로 부상)	호주제폐지, 부부강간 인정 등 (2005년 호주제 폐지, 2012년 부부강간 인정 판례)	남자 중학생 IS 합류 (2015년 :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고 그래서 IS가 좋다)
	일베, 남성커뮤니티 활성화 (2010년 무렵 일베의 출현)		
담론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희생시켜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상	여성이 우대받는 사회에서 남성 차별(역차별),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스트 그리고 여성이 약탈자 ⁷⁾	안티페미니즘, 정서적인 부문을 넘어 포스트 페미니즘에 대한 제기
“여가부, 꼴페미, 한국여자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군가산점도 못 받고 회사에서 무거운 생수통 끌으며 여친에게 명품백 사주고” “OO녀 ~”			
분석	성평등이 국가적 의제로 수용되는 변화를 여성의 특혜로 인식	안티 페미니즘과 결합된 여성혐오 담론의 기본구조, 남성의 피해의식과 여성의 자기혐오	현실적 제약으로서 불평등 간과한 채 개인적 성취를 강조하는 포스트페미니즘 수사

6) 정인경(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1호에서 발췌하여 요약

7) 윤보라(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제57호.

□ 주요쟁점과 앞으로의 방향

○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과 추모열기

- 사회적 공감과 성찰을 바탕으로 : 무엇을 공감하고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여성살해 vs 문지마 살인,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일어난 여성표적범죄 vs 한 정신분열환자의 우연한 피해자 선택, 더 이상 여성을 죽이지 말라 vs 남자도 죽는데?)
- 집단추모 현상(누적된 결과,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
-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차별금지법)

강남역 살인사건, 개인병리인가? 사회병리인가?

- 신동근 |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과장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장

강남역 살인사건, 개인병리인가? 사회병리인가?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과장/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장)

1. 여성혐오범죄나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냐?

정신병적 상태, 아마도 피해망상에서 벌어진 병적 범죄로 평가된다. 경찰의 프로파일러 발표에서도 병적 범죄로 결론을 지었다.

그 대상이 평범한 여성이었고 여자라서 죽였다는 이유로 ‘여성혐오범죄’ 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혐오범죄는 KKK나 스킨헤드 같은 백인우월주의자처럼 정신병에 의하기 보다는 우월감과 편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벌이는 범죄인데, 이 사건은 정신병이 있다는 점, 여성자체에 대한 우월감이나 혐오나 편견과는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여성이 무시해서 그랬다는 진술로 보아 여성으로부터의 좌절과 이로 인한 분노가 피해망상을 형성하고 범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다.

2. 조현병이란 무엇인가? 망상이 형성되는 이유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병으로 뇌의 기질적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인지, 정동, 지각, 행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정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이 환각과 망상이며 이로 인해 현실판단력이 떨어진다. 조현병 환자는 환각과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 예로 과대망상, 피해망상과 종교망상에 시달린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를 들 수 있다.

조승희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며 주변 친구들을 사탄으로 인식하여 그들을 죽이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희생을 한 것이다. 이처럼 망상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

망상이란 실재가 아닌 믿음을 말하며, 그 생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망상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 손상된 자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외부로 투사하는데 소망이 투사되면 과대망상이, 원망과 자기비난이 피해망상이 생길 수 있다.

3. 극도의 폭력성이 표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낮다. 하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예측불허의 범죄,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엔 훨씬 더 높게 나온다. 극도의 폭력성은 병이 심각한 급성기, 또는 치료 후 안정되었다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 자주 생긴다.

폭력적인 이유는 주위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 자신을 비웃고 욕을 하는 내용의 환청,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는 내용의 환청 등 병의 증상과 관련이 많고 대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는 약물 투약 및 치료로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때에 따라선 정신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4. 생면부지 여성에게 분풀이한 이유는?

정신병적 상태에서 한 행동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자신의 분노를 힘이 약한 여성에게 표출했을 가능성, 여성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남성의 복수, 또는 환청의 명령일 수도 있다.

단 여성을 공격한 그 근본은 여성에게서 겪은 좌절, 수치심이 관련이 있고 이후 형성된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죄책감을 느끼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둘째 양심이 있어야 한다. 정신병적 상태에서는 현실판단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동의 의미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망상에 의해 사탄을 공격했다고 생각한다면 죄책감을 느끼겠는가? 단, 증상이 호전되면 그 때서야 현실을 알게 되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양심이 없는 사이코패스 취급을 하면 안 된다.

6. 치밀한 계획 범죄?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죽이겠다는 정도의 계획이지, 언제 어떻게 죽이고 도주하고 범죄를 은닉할지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치밀함이란 여성을 공격하겠다는 결심이 전부이다.

조승희 사건도 미리 총을 사서 준비해서 쏜 것이지만 그 내용은 구세주인 자신이 사탄들을 향해 총을 쏜 것일 뿐이지 치밀한 계획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7. 최근 묻지마 식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개인이 모르는 타인을 공격하는 증오범죄가 늘었다. 바꿔 말해, 묻지마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증오에 사로잡힌 개인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동물의 경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격분을 하게 되는데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증오는 위협을 받을 때 흔히 형성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몇 가지 감정들은 심한 위협을 느끼게 하고 증오를 형성하게 한다. 그런 감정이란 박탈감, 불평등, 불공정, 배신감, 착취, 좌절감, 수치심 같은 것이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위협받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 실직 등 좌절감을 겪는 사람이 많고 그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안정적 직업 고용 등)이 구축된다면 묻지마 범죄도 줄어들 것이다.

8. 여성의 불안이 심각하다.

평소 힘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겪으며 폭력과 추행에 노출된 여성의 불안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힘이 약했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력과 추행에 노출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경향, 여성비하적인 경향이 높은 나라이며 그로 인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및 살인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느낀 여성들의 불안이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모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그리고 흔히 찾는 공중화장실이라는 점이 불안을 더 크게 하였다. 즉, 나와는 거리가 먼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도, 불안감도 더 크기 때문이다.

9. 된장녀, 김치녀 등 성차별적 현상과 여성혐오가 늘어간다.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좋아해야 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로를 견제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이 많다.

과거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고 대부분의 직업을 가졌으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가사를 하다 보니 남성에게 의존적이었다. 지금은 남녀의 구분이 없이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도 적어지면서 적은 일자리와 재화를 놓고 남녀가 경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경쟁에서 낙오되는 남성들이 늘었다.

경쟁에서 이긴 유리한 조건의 남성은 여성을 만나기가 쉽지만 경쟁에서 낙오된 남성은 여성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이는 남성의 능력이 저하된 것도 원인이지만 한편으로 스스로 능력이 늘어나고 자신보다 낮은 남성을 원치 않는 여성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혐오가 심해지게 되었다. 남성이 여성을 된장녀 등의 비하하는 내용의 공통점을 보면 ‘돈 많은 남자의 편에 붙어서 편히 살려고 하는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짝을 만나기 어려운 남성의 합리화와 관련이 많다.

작은 찾지 못한 남성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 즉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반응이 생긴다. ‘나는 여자를 사랑한다’ → ‘여자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다)→(방어기제 작동) →’ ‘나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돈만 알고 성을 매개로 삼아 남자의 그늘아래 살려는 천박한 인종이기 때문이다(합리화)’ →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혐오를 하는 남성들 역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도태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불쌍한 면도 있다(일부 남성은 자신의 돈과 명예를 자랑하며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부류도 있다. 이 경우는 동정의 시선도 아깝다) 지금 사회는 물질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 시대에 빠져 있어 무한경쟁 속에서 남보다 우월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과 비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다. 경쟁에서 실패한 개인이 노력에 의해 신분이 상승하는 계층 사다리도 거의 사라진 상태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

결국 여성혐오가 벗어나려면 사회적 변화와 계몽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천민 자본주의를 벗어나고 능력이 부족해도 노력을 통해서 살아갈만한 세상을 만들어야하며 계층 사다리가 있어 인생역전도 가능해야 한다.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보다 안정된 직업고용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 제공해야 극단적인 분노와 혐오를 줄일 수 있다. 여성이 남자를 조심하라고 배우는 것의 십분의 일이라도 남성은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고 특히 성적인 행동에 있어 주의를 요해야한다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확충, 교육과 배려를 통해 남녀가 서로 혐오하지 않고 태어난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회가 오길 기대해본다.

긴급토론회

발 제

언론의 시각으로 본 강남역 살인사건

- 김서영 | 경향신문 기자

언론의 시각으로 본 강남역 살인사건

김서영 (경향신문 기자)

“가해자의 꿈에만 관심 갖는 언론” “피해자를 ‘화장실녀’ 라고 부르는 기레기” “남녀 싸움인 것처럼 보도하지 마세요” 한국 언론이 또다시 ‘기레기’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지난 17일 한 여성이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묻지마 살인’으로 설명했고, 언론은 이를 ‘발아찼다’ . “강남역 묻지마 살인” 식의 헤드라인이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에 깔렸다.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반작용이 터졌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피의자의 말에서 이 사건의 ‘여성혐오’적 성격을 발견했다. 이들은 “피의자 김씨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만 노렸다. 과연 본인보다 힘이 센 남자였어도 죽였을까”라고 묻기 시작했다. “묻지마 범죄가 아닌 선택적 살인”이란 지적이 터져나왔다.

여성들은 피해자에 감정이입을 했다. “나는 그 시간에 그곳에 없었기에 살아남았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여성 선택 살인” “여성혐오 살인”이란 구호가 번졌다. 아무도 주도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 인근인 강남역 10번 출구 외벽은 수백개의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 추모와 분노의 목소리는 SNS를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퍼져나갔다.

분명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전까지도 모르는 남성에게 얻어맞고 죽임당한 여성은 수도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대적인 추모 열기로 번진 적은 없었다. ‘묻지마 범죄’란 보도가 나가면, 모두가 ‘묻지 않으며’ 넘어갔다. 허나 이번은 달랐다.

기자로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고민됐다. 무언의 책임감에 쫓겨 혈레벌떡 기사를 내보내고 돌아보니,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고 긴급 토론회가 열리는 등 사회적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짚어본다.

첫째,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이 정말 ‘묻지마 범죄’ 인지를 네티즌보다도 더 먼저 따져묻지 못했다.

시작부터 꼬인 셈이다. 경찰은 일견 원인이나 동기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범죄를 보통 ‘묻지마 범죄’ 라 칭해왔다. 진짜 ‘묻지마’ 인지 아닌지는 사실 수사를 어느정도 진행한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건 초창기부터 ‘묻지마’ 란 딱지를 붙이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경찰이나 언론 모두에게 “이번 사건은 묻지마 살인이 아니다” “여성만 골라 죽였는데 왜 묻지마냐” 는 외침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완전히 낯선 견해였을 것이다.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는 생각 안 해봤을’ 테니까.

둘째, 대다수 언론은 이 현상의 핵심적인 맥을 짚는 데에 실패했다.

이번 현상에서는 여성들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 라고 명명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는 취재를 위해 인터뷰를 부탁한 여성학자나 필자 모두가 공감했던 바다. 여성들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대규모로” 반발을 표했는지가 중요했던 뜻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의자 김씨가 평소 ‘여혐종자’ 였는지, 범죄 동기가 실제로 ‘여혐’ 이었는지, 그가 경찰 조사에서 ‘여혐스러운’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 사건은 개별 케이스를 넘어 하나의 트리거(trigger)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여혐 범죄’ 라고 명명한 사회적 현상을 논의할 때, 그 논의에 경찰과 심지어 피의자가 낄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언론은 지나치게 경찰과 피의자의 입만 바라봤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초서 형사과장에게 피의자의 ‘여성혐오적’ 언행을 묻는다거나,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가’ 에 대한 해석을 경찰에게 맡기는 식이었다.

이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한국 형법은 아직 혐오범죄를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혐오범죄일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도 없다. ‘있는 법’ 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이 사건이 여성혐오인지를 따져 물어볼 이유가 애초에 없다. 실무에 적용하라고 배운적이 없으니까 ‘혐오범죄’ 를 둘러싼 학술적·실무적 해석의 권위 또한 없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강신명 경

찰청장은 “아직 한국에 협오 범죄는 없다” 고 단언했다. 어떤 행위를 법에 범죄로 규정해 놓지도 않고 ‘그런 범죄 없다’ 는 셈이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경찰이 ‘여성협오’ 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여성협오’ 란 용어가 ‘협오’ 란 표현 때문에 몰이해와 오해를 빚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이를 알고 판단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편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더니 “여성협오 범죄가 아니” 라고 결론내렸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비중을 실어준다기보단 경찰 인용에 더 많은 지면과 기사를 할애했다. 얼핏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경찰 말에 해석의 권위가 실리고, 경찰과 다르게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폐쓰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구도다. 실제로 “경찰이 여협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여협이라며 몰고늘어지냐” 는 반응은 현재도 쏟아지고 있다.

결과는 어떠한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지난 26일, 서초서 형사과장은 “여성협오 범죄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개념을 처음 들어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라” 고 답했다. 이전에 “여성협오 그런게 아니라 정신병자가 한 말” 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던 사람과 동일인물이다. 애초에 해석의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무책임한 답은 각 언론사 헤드라인으로 전국에 뿌려진 뒤였다. 아쉬운 부분이다.

언론은 “여성협오 살인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찰에게 “그럼 경찰 당신들이 생각하는 여성협오란 무엇인가” 를 물었어야 했다. 살해 원인이 정말 ‘여협’ 이었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석을 ‘경찰’ 에게 맡겼다는 점이 잘못이다.

셋째. 한국 언론은 ‘여성의 목소리’ 를 얼마나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는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언론이 이 사건을 ‘여성협오 살인’ 으로 부르는 여성들의 견해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순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그런 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까지는 보도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는 취지 역시 ‘우리의 의견을 알려달라’ 이지, ‘언론사 너네부터 우리의 의견에 동

의해달라' 가 아닐 것이다.

경향신문은 강남역 10번 출구 현장으로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여성혐오 살인' 으로 표현한 기사를 가장 처음 썼다. 이후 '우리는 여혐사회에 산다' 는 기획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론이 여성들의 사회적 움직임, 목소리를 싣는 데 지나치게 엄격하고 소극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안팎에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걸 우리가 여성혐오 살인이라고 쓸 수 있느냐' 란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언제는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부 검증하고 동의해서 기사를 써줬나'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각 언론사 데스크들은 젠더 문제에 관한 기사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감수성과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데스크가 판단능력이 딸리는 주제에 대해 일선 기자가 얼마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느냐는 각 사 분위기에 따라 다르므로 별론으로 친다.

보도를 할만큼 '유의미한 지점' 이 있느냐가 기사를 쓰고 말고를 결정하는 척도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반응을 보도하는데 주저한 언론은 왜 주저했을까. 이 현상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지점' 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언론은 일이 커지고 난 이후에야 '여성혐오' 란 표현을 사용해가며 이번 살인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언론이 이 사건을 알뜰하게 이해했으며,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튀어나왔는지 몰랐고 여성의 목소리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목소리를 '사소한 것' '유의미하지 않은 것' 취급하는 사회 전체의 '여성혐오적' 분위기에서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란 뜻이다.

'기레기' 란 말은 언제 들어도 뼈아프다.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시작된 '여성혐오' 에 관한 논쟁은 한국 사회를 당분간 뜨겁게 달굴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 언론이 여성들의 사회적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계기가 됐음 좋겠다. 아직도 '여혐 대 남혐' '순수한 추모' 식으로 프레이밍 하는 언론이 있는 것을 보아, 갈 길이 먼 것 같다.

	긴급토론회
발 제	여성폭력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사회적 반응과 대책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여성폭력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사회적 반응과 대책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1993년 12월12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에서 여성에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손상이나 괴롭힘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폭력행위등을 여성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여성 차별(혐오) 범죄가 맞나, 묻지마 살인이 맞나로 연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팽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차별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명확해 질것 같다.

여성폭력 현실

전 세계의 145개국 중 우리나라의 성 평등지수는 115위라는 사실은 우리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수이다. 이는 곧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에 대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만연된 현실이며, 이는 여성폭력피해자를 낳게 한 기반이 되기도 한 심각한 수치이다.

여성차별(혐오)에 대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10번출구 인근화장실내 발생한 것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우리사회 현상이다.

우리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 차별, 혐오에 대한 경험은 여성, 여성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하게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여성폭력의 현실

여성가족부 보고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203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총 296,104건을 상담했고 이중 가정폭력상담 55.5% 기타(이혼, 부부갈등, 가족문제, 성폭력 등)44.5%순으로 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154개 성폭력상담소에서 총 89,975건을 상담했고 이중 강간

35.1%, 성추행 42. 3%, 기타 22.6%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2013년 성매매 전국실태조사에서 남성의 56.7%(680명)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매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 그 비중은 3년 전 (51.5%)보다 증가. 최근 1년간 성매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명중 1명(27.2%)라고 발표했다.

2015년 대검찰청 범죄분석결과 강력범죄(흉악-상인, 강도, 방화, 성폭력) 피해자의 약 90%가 여성이라고 보고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현실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살해 실태조사는 전무하다.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해 2009년부터 여성살해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수치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남편이나 애인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657명 미수포함 1051명 최소 2.4일에 여성 한 명이 살해 됐거나 살인미수 사건을 경험한 통계지수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사회적 반응

강남역 10번출구 여성살해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으로 경찰조사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 고 진술했다. 아주 평범한 일반시민에 의해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은 우리사회에서 만연한 여성혐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의 ‘강남역 10번출구’ 라는 페이스북을 개설하면서 추모의 물결은 급물살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그 동안 발생된 여성피해살인사건이 쌓여 이제야 시민에 의해 드러났다고 본다

그에 반해 언론과 경찰, 국회의 움직임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경찰에선 본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 로 결론을 내렸고, 국회에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남녀 공중화장실의 의무 분리,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발의 예정으로 대안을 내놓았다.

또한 언론에선 피해자 범행당시 cctv상황을 여과없이 반복노출하는 자극적인 보도로 국민의 공포와 분노를 유도하고 여성혐오 논쟁보도로 사건의 본질 흐리고, 조현병 환자를 강력범죄와 연결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켰다..

여성폭력중단을 위한 대안마련 및 필리버스터

법률적인 접근으로 여성차별법을 제정등으로 차별(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등)및 혐오를 규정하는 것에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에서의 폭력, 차별(혐오) 근절을 위해 말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회문화운동 필요하다(지역사회, 학교, sns, 등)

- 나는 여성차별(혐오)을 위해 ()을 할 것이다.
- 나는 성평등을 위해 ()을 할 것이다
- 나는 폭력근절을 위해 ()을 할 것이다

Memo

Memo